

금융기관 대출

(증감액 기준, 단위: 조원)

구분	2016	2017				
		연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은행대출	77.5	83.6	13.3	18.7	31.0	20.7
기업	23.9	40.4	12.2	6.7	16.0	5.4
대기업	-9.9	-3.7	1.6	-2.9	0.8	-3.1
중소기업	33.8	44.0	10.6	9.6	15.2	8.6
가계	53.7	43.3	1.1	12.0	15.0	15.2
비은행대출						
기업	30.0	41.8	8.4	10.9	11.0	11.5
가계	78.2	57.0	15.2	14.9	13.3	13.6
신용협동기구	38.0	19.8	6.3	5.7	3.4	4.3
보험기관	9.6	6.3	0.8	1.4	1.4	2.8
기타금융중개회사	17.7	19.9	5.4	7.0	3.6	4.0

* 공공 및 기타대출 포함,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농협·수협·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보험기관 기준

**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보험기관, 연금기금, 예산전문기관, 공적금융기관, 기타 금융중개회사 등 기준

■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은 연초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 수출 호조,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입 등으로 3월 말까지 상당 폭 하락했다. 이후 북한 관련 리스크 전개 상황, 미 연준의 연내 금리 인상 기대 변화 등에 따라 등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10월 들어 북한 리스크 완화, 미 달러화 약세 지속, 국내경제의 견실한 성장세 등으로 하락세로 전환했고 연말에는 연중 최저치인 1,070.5원을 기록했다. 2017년 중 미 달러화에 대한 원화의 가치는 2016년 말 대비 12.8% 상승했다.

한편 원/엔 환율(100엔당)은 미 연준 금리 인상 기대변화와 북한 리스크 등에 영향을 받으며 등락을 지속하다 10월 들어 원화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하락했다. 2017년 말 원화의 엔화에 대한 가치는 100엔당 949.2원으로 2016년 말 대비 9.1%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의 일중 및 전일 대비 변동 폭은 연평균 각각 5.5원, 4.4원을 기록해 2016년(각각 7.5원 및 6.0원)에 비해 축소됐다.

외환스와프레이트(3개월물)는 외화자금 수요 확대 등으로 2016년 말 대비 0.61%포인트 하락한 -0.63%를 기록했다. 통화스와프금리(3년물)는 경제지표 호조 등에 따른 국고채 금리 상승 등으로 2016년 말 대비 0.37%포인트 상승한 1.57%를 기록했다.

2017년 경제성장

개 관

2017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2016년 대비 3.1% 증가했다. 세계 경제 개선과 IT 업종 호조 등에 따른 투자 회복세에 힘입어 2016년보다 증가세가 확대됐다.

생산 측면에서는 농림업이 증가세로 전환된 데 이어 제조업은 2016년에 비해 증가세가 확대됐으며, 건설업도 7.1% 증가하며 회복세가 지속됐다. 다만 서비스업은 2016년도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했다.

지출 측면에서는 민간소비에서 증가세가 확대됐으나 정부 소비는 감소해 최종소비 증가세는 2016년보다 둔화했다. 투자는 IT 업종 호조 등에 힘입어 설비투자가 크게 확대됐으며, 건설투자도 양호한 회복세가 지속됐다. 수출은 상품수출이 호조를 보였으나 서비스업 수출 부진 등으로 총수출 증가폭은 2016년 대비 소폭 둔화했다.

경제활동별 및 지출항목별 증감률

(2010년 연쇄가격 기준, 단위:%)

구분	연간		2016° (전기대비)				2017° (전년동기대비)			
	2016	2017°	1/4	2/4	3/4	4/4	1/4	2/4	3/4	4/4
국내총생산 (GDP)	2.9	3.1	1.0	0.6	1.4	-0.2	2.9	2.8	3.8	2.8
농림어업	-2.8	0.3	3.9	-0.3	-1.8	0.2	-1.9	0.5	0.4	1.5
제조업	2.4	4.4	1.7	-0.1	2.7	-1.7	4.8	3.6	6.4	2.7
건설업	10.1	7.1	4.8	-1.6	1.0	-1.6	12.4	8.3	7.1	2.7
서비스업	2.5	2.1	0.4	0.7	1.0	0.3	1.7	1.8	2.5	2.4
민간소비	2.5	2.6	0.5	1.0	0.8	1.0	2.1	2.4	2.6	3.4
정부소비	4.5	3.4	0.6	1.2	1.9	0.5	2.4	2.8	4.3	4.1
건설투자	10.3	7.6	4.2	0.9	1.1	-2.3	11.3	8.5	8.0	3.8
설비투자	-1.0	14.6	4.5	4.3	0.2	-0.7	16.1	17.9	16.3	8.6
지식재산 생산물투자	3.5	3.0	0.3	0.5	1.5	1.1	3.2	2.2	2.9	3.5
수출	2.6	1.9	2.1	-2.7	5.6	-5.3	3.7	0.3	4.4	-0.6
수입	4.7	7.0	4.9	-1.0	3.2	-2.9	10.1	6.6	7.4	4.1
국민총소득 (GNI)	4.2	3.1	2.3	-0.6	2.4	-1.2	2.3	1.8	5.0	3.0

주: 계절조정계열은 전기대비 증감률, 원계열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2017년 1분기 실질 GDP는 전기 대비 1.0% 증가(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했다. 생산 측면에서는 농림어업, 제조업, 건설업 및 서비스업이 모두 전기 대비 증가세를 보였다. 지출 측면에서는 건설, 설비투자가 크게 늘었다. 민간·정부 소비, 지식재산생산물 투자 등도 양호한 증가세가 지속됐다.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전기 대비 2.3% 증가(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했다.

2017년 2분기 실질 GDP는 전기 대비 0.6% 증가(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했다. 생산측면에서는 서비스업이 증가했으나 농림어업, 제조업, 건설업은 감소했다. 지출 측면에서는 민간 소비와 정부 소비 모두 증가세가 확대됐고, 설비투자도 양호한 회복세를 이어갔다. 다만 건설투자 증가세는 전 분기 대비 둔화했으며, 실질 GNI는 전기 대비 0.6% 감소(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했다.

2017년 3분기 실질 GDP는 전기 대비 1.4% 증가(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했다. 생산 측면에서는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이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농림어업은 감소했다. 지출 측면에서는 정부 소비와 건설투자의 증가세가 확대됐으며, 민간 소비

와 설비투자는 다소 둔화했다. 수출은 전 분기 감소세에 이어 증가세로 돌아섰다. 실질 GNI는 전기 대비 2.4% 감소(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했다.

2017년 4분기 실질 GDP는 전기 대비 0.2% 감소(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했다. 생산 측면에서는 제조업과 건설업이 감소했으나 농림어업과 서비스업은 증가했다. 지출 측면에서 민간소비는 증가세가 확대됐으나 설비와 건설투자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정부소비 증가세는 소폭 둔화했고 GNI는 전기 대비 1.2% 감소(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했다.

계절조정계열

■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

2017년 1분기에 농림어업은 3.9% 증가했다. 제조업은 정밀 기기, 기계 및 장비 등을 중심으로 1.7% 늘었다. 건설업은 건물 건설을 중심으로 4.8% 증가했으며 서비스업은 부동산 및 임대업 등이 늘어나면서 0.4% 성장했다.

2017년 2분기에 농림어업은 0.3% 감소했으며 제조업은 섬유와 운송장비 감소 등으로 전기 대비 0.1% 줄었다. 건설업은 주거용 건물 건설 등이 줄어 전기 대비 1.6% 감소했다. 서비스업은 금융 및 보험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0.7% 증가했다.

2017년 3분기에 농림어업은 1.8% 줄면서 감소세가 지속됐다. 제조업은 반도체 등 전자 및 전자기기를 중심으로 2.7% 증가했다. 건설업은 주거용 건물 건설을 중심으로 1.0%, 서비스업은 모든 업종이 증가하며 1.0% 늘었다.

2017년 4분기에 제조업은 전자기기 및 기타업종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이 감소하며 1.7% 줄었다. 건설업은 건물·토목 건설 등이 모두 감소하며 1.6% 줄었고, 서비스업은 정보통신업, 부동산 및 임대업 등이 증가세를 지속하며 0.3% 올랐다.

■ 국내총생산 지출

2017년 1분기에 민간소비는 정치적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0.5%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건설투자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집행 확대 등에 힘입어 4.2% 늘었다. 설비투자도 기계류 투자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부문을 중심으로 크게 늘어나면서 전기 대비 4.5% 증가했으며,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0.3% 증가했다. 수출은 재화 수출을 중심으로 전기 대비 2.1% 감소했으나, 투자호조 등으로 수입이 크게 증가(4.9%)하면서 순수출 기여도는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2017년 2분기에 민간소비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 고용 부진 완화 등의 영향으로 내구재를 중심으로 1.0% 증가했고, 설비투자는 IT 업황 호조가 지속되며 기계류 투자를 중심으로 4.3% 증가했다. 건설투자는 토목 건설 감소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하며 0.9% 오르는 데 그쳤으나, 2016년 동기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인 8.5%를 나타냈다.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연구개발(R&D) 투자 및 기타 지식재산생산물 투자가 모두 증가하며 0.5% 올랐다. 수출(-2.7%)과 수입(-1.0%)은 재화·서

비스에서 모두 감소했으나 수출 감소폭이 수입에 비해 크게 나타나면서 순수출 기여도는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2017년 3분기 민간소비는 북한 리스크 확대 등에도 불구하고 10월 장기 연휴에 따른 선수요와 추경에 따른 재정지출 확대 등에 힘입어 전기 대비 0.8% 증가했다. 건설투자는 토목 건설 감소폭이 줄면서 전기 대비 소폭 확대된 1.1% 증가율을 기록했다. 설비투자는 상반기 중 대규모 IT 투자가 일단락되며 전기 대비 0.2% 늘었다.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연구개발 확대에 힘입어 전 분기보다 확대된 1.5% 증가율을 기록했다. 수출은 전 분기 감소에 이어 크게 증가하며 5.6%를 기록했고, 수입은 3.2% 증가하면서 순수출 기여도는 플러스로 돌아섰다.

2017년 4분기에 민간소비는 양호한 소비심리 지속과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하며 1.0% 증가했다. 설비투자는 상반기 중 큰 폭으로 증가했다가 다소 조정되는 모습을 보이며 전기 대비 0.7% 감소했다. 건설투자는 4분기 들어 2016년 이후의 건물 착공 감소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전기 대비 2.3% 감소했다. 지식재산생산물 투자는 연구개발과 기타지식재산생산물이 증가하며 전기 대비 1.1% 올랐다. 수출은 재화와 서비스 수출이 모두 감소하며 전기 대비 5.3% 줄었으며, 수입은 재화 수입 감소로 2.9% 줄었다. 순수출 기여도는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원계열

2017년 1분기 원계열 기준 실질 GDP는 2016년 동기 대비 2.9% 증가했다. 경제활동별로는 제조업이 2016년 동기 대비 4.8%, 건설업이 12.4% 증가했으나, 농림어업은 1.9% 감소했다. 서비스업은 금융 및 보험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등의 증가에 힘입어 1.7% 늘었다.

지출항목별로는 민간소비가 승용차 등 내구재를 중심으로 2017년 동기 대비 2.1% 증가했고 건설투자는 건물 건설을 중심으로 11.3% 늘었다. 설비투자는 운송장비가 감소했으나 기계류 투자가 크게 늘면서 2016년 동기 대비 16.1% 증가했다.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3.2% 늘었다. 수출은 2016년 동기 대비 3.7%, 수입은 10.1% 증가했다.

2017년 2분기 원계열 기준 실질 GDP는 2016년 동기 대비 2.8% 늘었다. 경제활동별로는 농림어업과 제조업이 각각 0.5%와 3.6% 증가했다. 건설업은 호조세를 지속하며 8.3% 증가했고, 서비스업은 금융 및 보험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등이 양호한 증가세를 이어가며 1.8% 올랐다.

지출항목별로는 민간소비가 내구재·비내구재를 중심으로 2016년 동기 대비 2.4% 증가했고 건설투자는 주택건설 호조가 지속되며 주거용 건물을 중심으로 8.5% 늘었다. 설비투자는 기계류 투자 증가세가 지속되며 17.9% 감소했으며,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연구개발과 기타지식재산생산물 투자 증가폭이 감소하며 2.2% 느는 데 그쳤다. 수출은 2016년 동기 대비 0.3%, 수입은 6.6% 증가했다.

2017년 3분기 원계열 기준 실질 GDP는 2016년 동기 대비 3.8% 증가했다. 경제활동별로는 농림어업이 0.4%, 제조업은 6.4% 늘었다. 건설업은 7.1% 증가했으며, 서비스업도 운수 및

보관업, 정보통신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되며 2.5% 올랐다.

지출항목별로는 민간소비가 내구재 개선에 힘입어 2016년 동기 대비 2.6% 증가했다. 건설투자는 토목 건설 감소세가 소폭 완화했으나 건물 건설 증가세가 다소 둔화하며 8.0% 늘어난 등 증가폭이 줄었다. 설비투자는 큰 폭의 기계류 투자 증가세가 지속되며 2016년 동기 대비 16.3% 올랐다.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연구개발과 기타지식재산생산물 투자가 모두 늘며 2.9% 증가했다. 수출은 4.4%, 수입은 7.4% 증가했다.

2017년 4분기 원계열 기준 실질 GDP는 2016년 동기 대비 2.8% 늘었다. 경제활동별로는 농림어업이 1.5%, 제조업은 2.7% 증가했다. 건설업은 2.7%로 증가폭이 감소했고 서비스업은 문화와 기타 서비스업 감소 등으로 증가세가 소폭 둔화한 2.4%를 기록했다.

지출 측면에서는 민간소비가 준내구재, 비내구재 개선 등으로 증가세가 확대되며 2016년 동기 대비 3.4% 올랐다. 건설투자는 토목 건설 감소폭 확대, 건물 건설 증가세 둔화 등으로 2016년 동기 대비 3.8%로 증가폭이 줄었으며, 설비투자도 운송장비 투자 감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기계류 투자 증가세가 둔화하며 2016년 동기 대비 8.6%로 증가폭이 줄었다. 지식재산생산물 투자는 기타지식재산생산물 개선 등에 힘입어 3.5% 늘었으며, 수출은 2016년 동기 대비 0.6% 감소, 수입은 2016년 동기 대비 4.1% 증가했다.

물가

■ 소비자물가 동향

〈소비자물가〉

2017년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국제유가 상승 등 공급 측 압력으로 2016년 대비 1.9% 상승했다.

품목별로 보면 농·축·수산물은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축산물 가격 상승, 여름철 폭우·폭염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 강세 등으로 2016년 대비 5.5% 상

승했다. 공업제품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석유류 가격 상승(2016년 대비 7.7%) 등으로 1.4% 상승했다.

전기·수도·가스는 전기요금 인하(2016년 2월~, -11.6%) 등으로 2016년 대비 1.4% 하락했다. 집세는 신규입주 물량 증가 등으로 전·월세 가격 상승폭이 둔화하며 1.6% 상승했다.

주요 품목 연평균 등락률

(단위: %)

구분	상승 품목	하락 품목
농축수산물	귤(78.2), 달걀(43.7), 돼지고기(6.2), 오징어(49.9), 감자(26.0), 포도(14.6)	배추(-18.3), 쌀(-5.4), 배(-7.1), 현미(-6.4), 마늘(-6.4), 파(-5.5)
공업제품	휘발유(6.4), 경유(8.6), 자동차용LPG(12.7), 맥주(6.2), 이동복(3.7), 대형승용차(3.1)	보디워시(-22.0), 삼푸(-14.9), TV(-8.7), 커피(-5.6), 화장지(-5.1)
전기·수도·가스	도시가스(3.5), 상수도료(1.5)	전기료(-6.3), 지역난방비(-2.5)
집세	전세(2.9), 월세(0.1)	
공공서비스	하수도료(12.4), 외래진료비(2.6), 약국조제료(3.5)	방송수신료(-0.5), 국공립대학교 납입금(-0.3)
개인서비스	보험서비스료(19.5), 공동주택관리비(5.1), 구내식당 식사비(2.8), 김밥(7.8)	해외단체여행비(-2.6), 골프 연습장이용료(-1.5), 택배이용료(-0.6), 치과보철료(-0.5)

〈생활물가 및 근원물가〉

구입 빈도와 지출비중이 높아 서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물가는 2016년 대비 2.5% 상승했다. 신선식품 물가의 경우 신선과일이 15.0% 상승하며 2016년 대비 6.2% 상승했다.

물가의 기초적 흐름을 보여주는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2016년 대비 1.5% 상승하는 등 안정세를 지속했다.

생활물가 및 근원물가 등의 상승률 추이

(2015=100, 단위: %)

구분	품목수	가중치	전년대비 등락률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생활물가	141	551.6	4.4	1.7	0.7	0.8	-0.2	0.7	2.5
(식품)	81	191.5	6.3	2.3	0.8	0.5	2.4	2.6	3.3
(식품이외)	60	360.1	3.5	1.5	0.7	1.0	-1.3	-0.4	2.0
농산물 및 석유류제외지수	407	901.4	3.2	1.7	1.6	2.0	2.2	1.6	1.5
신선식품지수	50	40.3	6.3	5.9	-1.3	-9.3	2.1	6.5	6.2

〈지역별 소비자물가〉

17개 시도별로 2016년 대비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제주 2.3%, 광주·전남은 2.1%, 서울·부산·대전·경기는 1.7~2.0%, 경남은 1.6% 상승했다.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30개 도시별로 2016년과 비교하면 강릉, 제주, 충주 등 8개 도시는 2.1~2.5%, 수원, 천안, 전주 등 14개 도시는 1.9~2.0%, 창원, 구미, 춘천 등 8개 도시는 1.5~1.8%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단위: %)

구분	품목수	가중치	전년대비 등락률				
			2013	2014	2015	2016	2017
〈총지수〉	460	1,000.0	1.3	1.3	0.7	1.0	1.9
- 상품	308	448.1	1.0	0.9	-0.7	-0.6	1.9
(농축수산물)	73	77.9	-0.6	-2.7	2.0	3.8	5.5
(공업제품)	231	325.8	0.9	1.3	-0.2	-0.5	1.4
(전기·수도·가스)	4	44.4	4.5	3.9	-7.4	-9.2	-1.4
- 서비스	152	551.9	1.5	1.6	1.8	2.3	2.0
(집세)	2	93.2	2.7	2.3	2.5	1.9	1.6
(공공서비스)	32	145.1	0.7	0.7	1.2	1.5	1.0
(개인서비스)	118	313.6	1.6	1.7	1.9	2.7	2.5